

[종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압박
기업활동 부담 가능성 커”

전경련 최근 보고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면서 기업에 이의 실천을 요구하는 국내외 논의가 활발해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경제·사회·환경 문제 등에 관한 기업의 책임있는 활동’으로 정의되는 CSR의 이행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는 논의가 국내 정부기관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서 일고 있으나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최근 내놓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동향’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책임 경영을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각종 정책이 인위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남뉴스

고前총리 “지방선거차원 전략적 연대 반대”
정동영 의장과 오찬 회동서 거부 의사 밝혀

고 전 총리는 12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연대요청에 대해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차원의 관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정 의장과 오찬회동에서 “(내가) 중도실용주의와 개혁세력연대를 그동안 주장했지만, 이것은 지방선거차원의 전략적 연대와는 다른 것”이라며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총리가 5·31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추진해온 정 의장에게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히며 따라 우리당과 고 전 총리의 연대론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고 전 총리에게 “한 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뉴라이프와 같은 ‘수구 삼각연대’가 힘을 합치는 것을 방지하면 안 된다”며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고 전 총리가 함께 하신다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제안했다. 정 의장은 또 “한나라당 등 야당이 지방권력의 95% 이상을 독식

하고 있어 경제와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심판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 전 총리는 “중도실용치가 지방선거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는 “중도실용주의세력의 연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경어젠다인 민생경제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제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 전 총리는 자신의 중도 개혁세력연대와 관련, “선가와 관계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창조적 실용주의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정 의장은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짧은 기간에 우호협력관계를 빠르게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한·알제리 전략적 동반자 선언’에 서명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을 통해 양측간 제반 분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정치, 경제, 금융, 문화, 과학, 기술 및 다른 모든 관심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김석원기자 sykim@kwangju.co.kr

한-알제리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선언

알제리를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낮(한국시간 12일 밤) 알제 시내 대통령궁에서 알발라지즈 부대플라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짧은 기간에 우호협력관계를 빠르게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한·알제리 전략적 동반자 선언’에 서명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을 통해 양측간 제반 분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정치, 경제, 금융, 문화, 과학, 기술 및 다른 모든 관심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연남뉴스

빛의 만경

- 김중두



플만 더 우습게 됐다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

전남도, 사료 대체 효과... 2009년까지 9천ha로

전남도는 80% 이상 성장한 상태에서 통계로 수확, 발표시켜 친환경적인 사료를 만드는 ‘총체보리’ 재배 면적을 올해 2천850ha에서 연차적으로 늘려 2009년에는 9천ha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이 보리수매 감축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보리재배 및 축산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에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4일 순천을 시작으로 15일 강진, 17일 나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뉜 농가 및 지역축협 관계자 등 240명을 대상으로 총체보리 재배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총체보리 재배 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효율적인 기계정비 활용, 양질의 조사료 공급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올해 보리재배농가와 연계한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을 위해 트랙터와 펌프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에 모두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후사료 대 조 사료 비율이 47대 53으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조사료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이 보리재배농가에 수매 감축에 따른 대체작물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0만그루 헌수운동’ 선포 대남로(백운고교~광주천변) 폐쇄도 부지가 시민들의 헌수(獻樹)운동으로 새롭게 바뀐다.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오전 헌수운동에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2006 푸른길 100만그루 헌수운동 선포식’을 갖고 대남로를 함께 걸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大法 ‘새만금 소송’
16일 최종 선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대법원 16일 법정에 열린다.

대법원은 “최고재판소 ‘새만금 소송’ 원·피고측 대리인들에게 이변달 16일로 최종 선고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6일 최종 선고를 내기로 한 것은 오는 17일 방조제 33km 중 개방된 채 남아있는 2.7km 구간에 대한 판결이 공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단체 및 전북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측과 농림부·전라북도 관계자들로 구성된 피고측 대리인들은 지난 달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해양환경 침해 우려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등 새만금 사업의 핵심 쟁점에 대해 공개변론을 벌인 바 있다.

연남뉴스

先州日報 光州日報 廣告接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직통: (062)227-9600, FAX: 227-9500.

변호사 개업인사. 주요 학력 및 경력: 전남 회산 출생, 서울대 법대(85학번),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0기). 법무개시: 2006. 2. 22(수), 대표전화: (062)227-0700.

채권신고공고. 당 회사는 2006년 2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이월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13일 주식회사 구룡건설.

장흥임씨 해남군 산이파 재계공(裁姓公)문중회의소집공고. 장흥임씨 해남군 산이파 재계공(裁姓公)문중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2006년 3월 14일 장흥임씨 해남군 산이파 재계공문중 25세 林永國.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금전. 010-3144-5830.

어음가계·담보. 어음 1,000만원 이하 환영 [월 2~5.5%] (등록업체) 010-3009-6633.

분묘개장공고(1차). 완도군이 시행하는 '06 완도 망석~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공사유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9일 완도군수.

산행. 영문산악회 정복 고지경 경수산 3월 13일(일) 07시 순경원, 08시50분 광주역(08시20분 분파)에 출발. 호반산악회 마산, 서천산, 지대봉 3월 19일(일) 08시 광주역에서 출발. 011-602-4267.

공시최고. 사건번호 신 청 인, 2006카공 52 김충선, 2006카공 54 김근국, 2006카공 55 김현철, 2006카공 56 김성룡, 2006카공 57 신철식, 2006카공 58 최백현, 2006카공 59 김진우, 2006카공 60 김선희, 2006카공 61 지만준, 2006카공 62 장양호, 2006카공 63 최순식, 2006카공 64 최양수, 2006카공 65 최양수, 2006카공 66 최양수.

공무원 대출(직장인). 공직원(공립, 사립), 군무원, 직장인. 080-500-6620 (무로전화), 011-9535-8236 (상당실장).